

KG케미칼, 비료 공급중단 “지원요청”

5월2일부터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도산위기 ... 풍농·동부한농도 동참

원자재 가격 폭등에 부담을 느낀 비료기업들이 가격 인상이나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며 공급을 중단하고 나섰다.

관련연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화학비료 생산기업인 풍농과 KG케미칼이 5월2일부터 수지가 맞지 않아 생산을 할 수 없다며 농협 공급을 중단했고 동부한농화학도 동참할 뜻을 밝혔다.

비료기업들은 “농협 외 판매처에는 가격을 50% 올려서 공급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운임, 환율 폭등에 따라 도산할 위기에 처해 농협이 가격을 인상해주든지 정부에서 보조금을 부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재 가격은 2007년 말에 비해 암모니아가 56%, 인광석이 200%, 염화가리가 81%, 유황은 177%, 인이안(DAP)이 128% 폭등했으며 수출국들이 원자재를 무기화하면서 원료를 확보하기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농 관계자는 “2007년 하반기에 원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반영해 2008년 초 납품 가격을 50% 이상 인상했어야 하지만 농민 부담을 줄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평균 24% 인상을 수용했는데 최근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2008년 2/4분기에만 전분기대비 60-70%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KG케미칼 관계자는 “가격이 오르면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겠지만 지금은 비료기업들이 생산을 계속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털어놨다.

동부증권 박영훈 애널리스트는 “국내 비료 수요의 50%를 책임지는 영세 비료기업들이 도산하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장기업인 남해화학이 수익을 포기하고 물량을 모두 내수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은 수출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출단가 급등에 힘입어 2008년 1/4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무려 41.5%, 555.4% 뛰는 등 기대 이상의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농협은 일단 재고 물량과 남해화학 공급분으로 5월 한달은 버틸 수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농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일단 농민들이 6월까지 성수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비료기업들에게 공급 재개를 요청하는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보조금 보완을 건의하고 농가에는 비료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07>